

# 생활사 기록물 활용과정에 관한 연구

- 의식주문화 기반 방송콘텐츠 기획을 중심으로 -

## Utilizing Process of Daily Life History Records: Focusing on Planning Broadcast Contents of Food, Clothing and Shelter Culture Basis

신주희, 한성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 전공, iam0707m@gmail.com

김양우, 한성대학교 크리에이티브 인문학부, ykim@hansung.ac.kr

Ju-Hee Shin, Hansung University

Yang-woo Kim, Hansung University

본 연구는 다양한 ‘계층’ 및 ‘목적’을 위한 기록 콘텐츠가 주목받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용자의 기록물 ‘활용’과정 연구 확대의 필요성과 더불어, 생활사 관련 기록물 활용의 중요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방송관련 전공자 및 종사자들의 『국가기록원』 의식주(衣食住) 콘텐츠 활용 과정을 조사하였다. 즉,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 하여 기록물을 토대로 방송 콘텐츠 기획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서 방송 콘텐츠 아이디어로 연결 되는 과정에서 7가지 ‘가치’요인이 식별되었다. 연구결과로서 시사점으로서 기록물 선별 과정 및 기록물 설명 작성에 있어서 ‘가치’요인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1. 서론

2000년대 이후 나타난 기록정보서비스상의 변화 움직임 중 하나는 현용기록물 위주의 내부이용자들만을 위한 기록 콘텐츠 제공이 아닌 보다 다양한 ‘계층’ 및 ‘목적’을 위한 콘텐츠가 주목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본 연구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계층’ 및 ‘목적’을 이해하기 위하여 콘텐츠 이용자의 기록물 ‘활용’과정에 대한 연구 확대의 필요성이다. 둘째, 기록물 선별의 일환으로서의 ‘가치’ 평가에 국한하지 않고 생산 당시의 사용 목적을 넘어선 다양한

이용 ‘가치’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다. 셋째, ‘생활사(生活史)’ 관련 기록물에 관한 연구가 부족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연구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넷째, 활용의 다양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방송 콘텐츠 기획을 포함한 ‘기록한류(記錄韓流)’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특정 이용자 집단 — 방송콘텐츠 관련 전공자 및 종사자들 — 의 『국가기록원』 의식주(衣食住) 관련 콘텐츠 활용 과정을 알아보자 한다.

### 2. 선행연구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네 가지 카테

고리를 나누어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1) 기록정보서비스의 중요성 증대(박지태, 2011; 서은경, 전경희, 최상희, 2006; 한수연, 정동열, 2008); (2) 기록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중요성 (설문원, 2008; 양인호, 2010; 윤은하, 2012; 정경희, 2006, 2007); (3) 생산당시 목적을 넘어선 2차적 가치의 중요성(국가기록원, 2011; 기록학용어사전, 2008; 이원규, 2002; 천권주, 김효민, 2010; Schellenverg, 2002) ;(4) 생활, 산업, 학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기록물 활용(설문원, 2008); (5) 생활사 관련 기록연구의 부각(신동희, 2009; 양인호, 2010; 이해준, 2015;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7; 함한희, 2008)등 이다.

###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한 이론적 접근방법과 심층면담을 통한 실증적 접근방법을 병행하였다. 인터뷰 조사는 서울소재 방송관련 학과 학생 및 방송국 프로그램 기획 담당자 총 11명을 대상으로 2016년 11월부터 12월 초까지 진행되었다.

인터뷰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제공된 연구 대상 기록물 콘텐츠는 『국가기록원』의 의식주(衣食住) 관련 콘텐츠 -기록으로 살펴보는 의식주 문화,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로 모든 연구 참여자에게 공통으로 제공되는 기본기록물 3개와 각 참여자들 마다 상이한 추가기록물 3개 총 36개로 이루어졌다. 기록물 선정은 의, 식, 주 등 주제, text, 사진, 동영상 등 매체유형을 안배하여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36개 기록물 중 첫 번째 기본기록물을 토대로 한 결과만을 제시하였다. 해당 기록물은 <그림 1>과 같이 메타데이터, 원문 그리고 기록물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                         |
|-------|-------------------------|
| 문서제목  | 중·고교학생 교복 및 두발 제도 개선(안) |
| 대통령이름 | 전두환                     |
| 생산기관  | 문교부                     |
| 생산일자  | 1981. 12. 30.           |
| 생산연도  | 1988년                   |
| 관리번호  | BA0084206               |
| 문서크기  | 26.8×39.2(cm)           |



- 「중·고교학생 교복 및 두발 제도 개선(안)」 문서는 문교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1981년 12월 30일 전두환 대통령의 결재를 받았다. 문서에 포함된 「중·고교학생 교복 및 두발 제도 개선(안)」을 통해 볼 때 1981년 12월 23일 문교부 내부 검토 과정(연구관→장학관→실장→차관→교육부 장관 결재)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

- 1988년 대통령비서실에서 정부기록보존소(국가기록원 전신)에 이관되었다. 현재 「중·고교학생 교복 및 두발 제도 개선(안)」 1권이 1월을 구성하고 있다.

- 정부기록보존소 직제 개정(1986. 6. 14. 대통령령 11930호)에 따른 대통령 재가 문서의 특별 관리(「대통령 결재 문서에 대하여 대통령기록 문서고를 설치하여 이를 수집·관리 보존하여야 한다.」 규정)에 따라 대통령 결재 문서 로 관리되었다.

<그림 1> 기본기록물

또한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인터뷰 질문들 중 핵심질문인 연구 참여자들에게 제시된 기록물을 토대로 한 방송콘텐츠 기획안의 방향 및 내용과 관련된 결과가 제시되었다.

해당 인터뷰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인터뷰 질문 : 기록물을 보시고 [중략] 방송 콘텐츠의 대략의 방향이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터뷰 결과 분석의 전반적인 틀로서 ‘텍스트 만들기,’ ‘전반적인 자료의 주제와 경향을 파악하기,’ ‘범주를 코드화하기,’ ‘경향분석을 위해 자료 크기를 줄이기,’ ‘깊은 구조를 그리기’ 등 총 5단계로 이루어진 Carney(1990)의 분석적 ‘추상화 단계’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코딩 방법으로는 Strauss & Corbin(1998)이 제시한 개방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 그리고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의 분석단계를 적용하였다. 먼저 개방코딩을 통해 텍스트를 범주화 하고 면밀히 검토하면서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각 범주의 속성을 고려해서 하위범주로 연결시키는 축코딩방법을 이용하였고 마지막으로 선택코딩을 통하여 정해진 범주들을 결합 및 정제(精製)하였다 (Strauss & Corbin, 1998, p. 102, 124, 143).

### 4. 연구결과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네 가지 방송 프로그램 유형, 세 가지 상위범주, 다섯 가지 하위 범주가 식별되었다(<표 1> 참조). 유형과 하위범주는 비 주제적인 개념, 상위범주는 주제적인 개념, 그리고 부호(code)는 주제 및 비 주제적인 접근으로 구성되었다.

<표 1> 기본기록물 코딩 결과

| 유형      | 상위범주        | 하위범주    | 부호(code)                 |
|---------|-------------|---------|--------------------------|
| 시사 & 교양 | 교복 및 두발 자율화 | 인과      | 두발정책 변화                  |
|         |             | 소개      | 변천사                      |
| 다큐멘터리   | 교복 자율화      | 인과      | 하위문화                     |
|         |             | 비교      | 국내외 교복 변천사<br>자율화 정책 전·후 |
|         | 두발 자율화      | 인과      | 도시의 영향                   |
|         | 교복 및 두발 자율화 | 인과      | 하위문화                     |
| 인식      |             | 훈육과 자율성 |                          |
| 드라마     | 교복 자율화      | 인과      | 에피소드                     |
|         | 두발 자율화      | 인과      | 에피소드                     |
|         | 교복 및 두발 자율화 | 활용      | 소품&분장                    |
| 예능      | 교복 자율화      | 활용      | 소품                       |

하위범주로 제시된 7가지 요인 -‘인과,’ ‘인식,’ ‘소개,’ ‘비교,’ ‘전환,’ ‘분석,’ ‘활용’- 은 기록물 콘텐츠 활용의 결과로 방송콘텐츠 아이디어가 연결 되는 과정과 관련된 ‘가치’요인들이다. 이러한 요인들을 기반으로 다양한 방송 콘텐츠 아이디어가 도출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다큐멘터리유형에 해당하는 가치요인 ‘인과’ 및 ‘인식’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 7: 세대마다 약간 하위문화가 다르잖아요. [중략] 옷을 자유롭게 입음으로써 십대들의 생각도 좀 더 개성을 표출할 수 있고 자기가 어떤 자기들만의 하위문화를 만드는데 자신감을 생길 수 있고 ‘옷

이 자유로워지면 사상이 자유로워지고 자기들끼리 문화를 형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걸 탐구하고 알아보는 다큐멘터리를 생각했어요.

연구참여자 6: 우리는 청소년이라는 주체를 훈육, 관리 그리고 통치해야 되는 아직 미숙한 대상으로 보는데, 사실 이제 와서는 좀 ‘논의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물음을 던지는 내용으로 현재 청소년을 조명하는 청소년의 자율성이라는 것을 좀 더 부각시키고 강조하고 싶어요.

한편 도출된 방송콘텐츠 아이디어를 살펴보면, 프로그램 유형으로는 다큐멘터리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사&교양, 드라마가 각 3건 예능은 1건으로 가장 적었다. ‘가치’요인은 ‘인과’요인이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러 프로그램 유형에 적용되었다. 이어서 ‘소개,’ ‘비교,’ ‘활용’요인이 각 2건 ‘인식’요인은 1건으로 나타났다. ‘전환’과 ‘분석’요인은 본 기본 기록물에서는 도출 되지 않았다(<표 2> 참조).

<표 2> 프로그램 유형 및 가치요인 빈도수

| 프로그램 유형<br>가치요인 | 시사&교양 | 다큐멘터리 | 드라마 | 예능 | 계  |
|-----------------|-------|-------|-----|----|----|
| 인과              | 1     | 3     | 2   | -  | 6  |
| 인식              | -     | 1     | -   | -  | 1  |
| 소개              | 1     | 1     | -   | -  | 2  |
| 비교              | 1     | 1     | -   | -  | 2  |
| 전환              | -     | -     | -   | -  | -  |
| 분석              | -     | -     | -   | -  | -  |
| 활용              | -     | -     | 1   | 1  | 2  |
| 계               | 3     | 6     | 3   | 1  | 13 |

### 5. 결론

기록물 콘텐츠를 기반으로 다양한 방송콘텐츠 아이디어 도출로써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특히 ‘인과,’ ‘인식,’ ‘소개,’ ‘비교,’ ‘전환,’ ‘분석,’ ‘활용’ 7가지 ‘가치’요인에 경우, 이러한 요인들을 기반으로 방송콘텐츠 아이디어들이 도출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기록정보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록물 선별에 있어서 이러한 요인들을 갖춘 기록물에 우선순위를 두어 선별함이다. 둘째,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기록물 콘텐츠에 일부분을 구성하는 ‘기록물 설명’을 작성함이다.

이러한 방식에 따라 기록관리전문직의 기록물 선별기준 및 콘텐츠 개발 능력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국가기록원. Retrieved from <http://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viewMain.do/> 검색일자-2016-8-8/ 기록으로 살펴보는 의식주 문화. 국가기록원. Retrieved from <http://theme.archives.go.kr/next/education2010/viewMain.do/> 검색일자-2016-8-8/ 박지태 (2011). 기록학개론. 기록관리실무 시리즈, 1. 대전: 국가기록원.

설문원 (2008). 기록정보서비스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 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5(3): 249-271.

신동희 (2009. 가을호). 아카이브와 사회의 기억. 기록인. 44-49.

양인호 (2010). 기록정보콘텐츠의 품질향상 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23: 87-139.

윤은하 (2012). 기록정보 서비스와 정보공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2): 163-179.

이원규 (2002). 한국 기록물관리제도의 이해.

서울: 진리탐구.

이해준 (2015). 역사민속학과 기록자료 활용. 역사민속학. 47: 33-55.

정경희 (2006). 국가기록원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정보이용행태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1): 283-303.

정경희 (2007). 시장세분화 기반의 기록정보 서비스에 관한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3): 277-296.

천권주, 김효민 (2010). 기록물 보존가치 평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육군 특수기록관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23: 45-86.

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 용어 사전. 서울: 역사비평사.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7). 기록으로 보는 생활사. 부산: 국가기록원.

한수연, 정동열 (2012). 기록물관리기관 서비스 품질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1): 59-78.

함한희 (2008). 생활사 연구와 아카이브 활용. 영남학. 14: 1-33.

Carney, K. (1990). Content analysis. in R. E. Asher et al (eds) The Encyclopedia of Lanugage and Linguistics. Elmsford, NY: Pergamon. Quoted in Miles, M. Huberman, A. M.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An Expanded sourcebook(p. 92). New Delhi: SAGE.

Schellenverg, T. R. (2002). Modern Archives - Principles and Techniques. Chicago: SAA.

Strauss, A. L., Corbin, J. M.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